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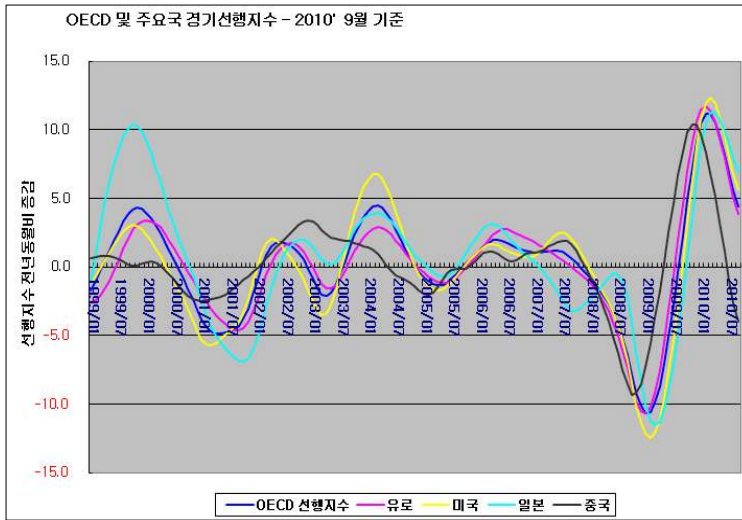
2010 - 11 (통권 26호)

서 평 2010. 11. 2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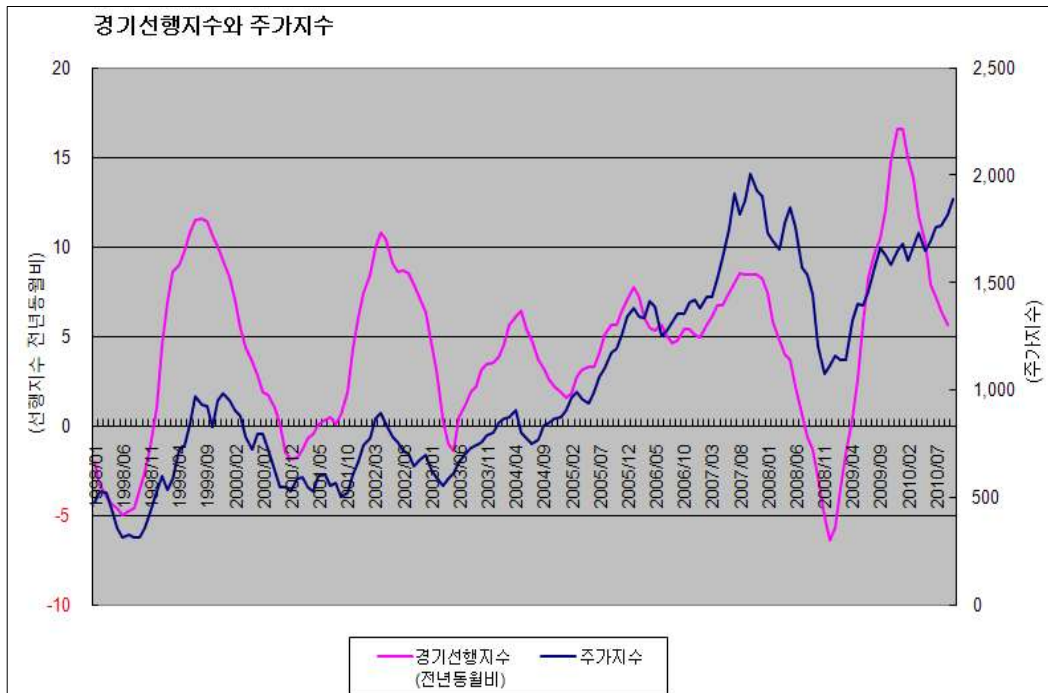
투자선행지수로 살펴본 주식시장

사단법인 광주경제문화공동체

1. 주요 경기 및 금융지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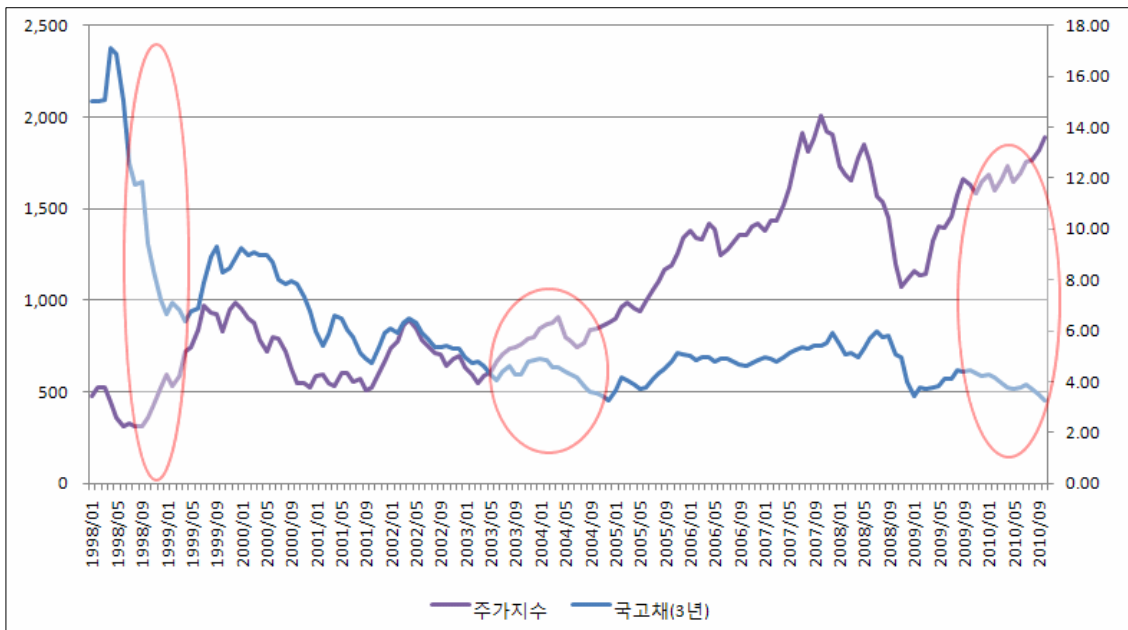


- OECD 및 각국 경기 선행지수 둔화세 지속
- 급격히 악화되는 중국경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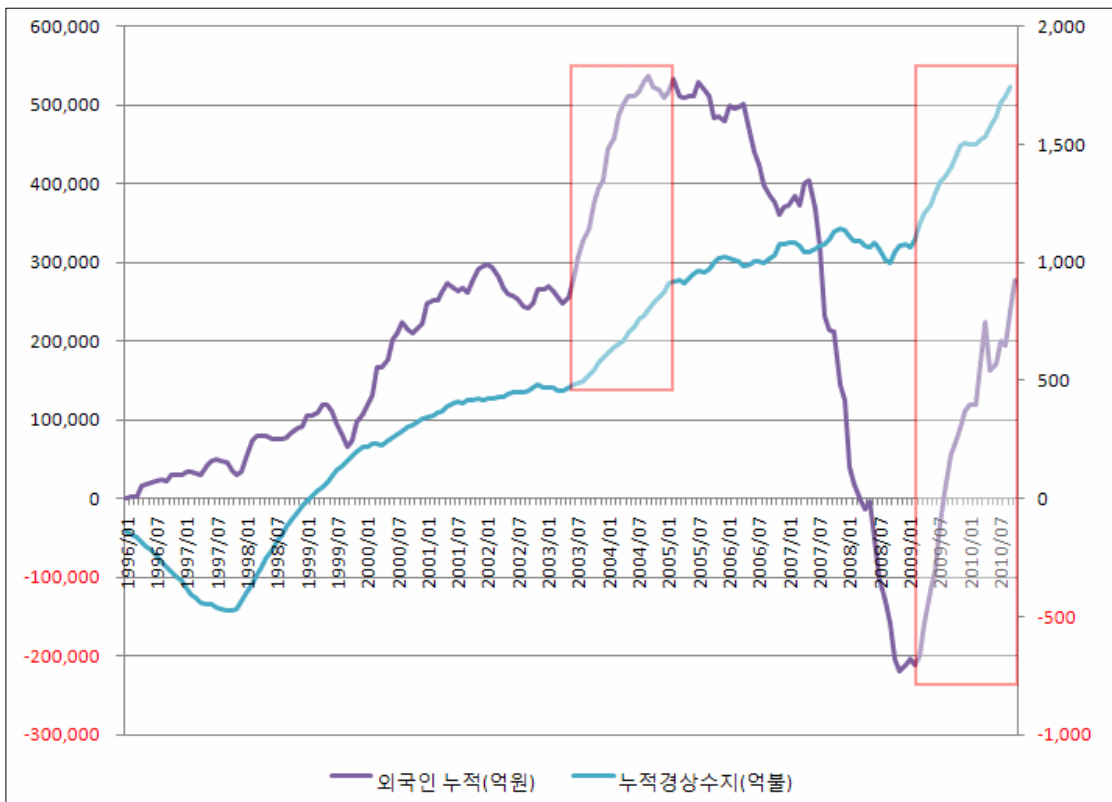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OECD STAT, KOSIS, 한국은행, (사)광주경제문화공동체

지금까지 신흥국의 자금유입과 주식시장의 상승은 미국의 “양적완화2” 기대감에 따른 금융자본들의 달러화 약세에 베팅(달러인덱스 약화), 위험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(신흥시장 통화, 상품통화, 주식시장, 원자재, 상품 등) 에 기인한 면이 큼. 11월 4일 양적완화 기대감이 종료된 만큼 향후 자금 유출입 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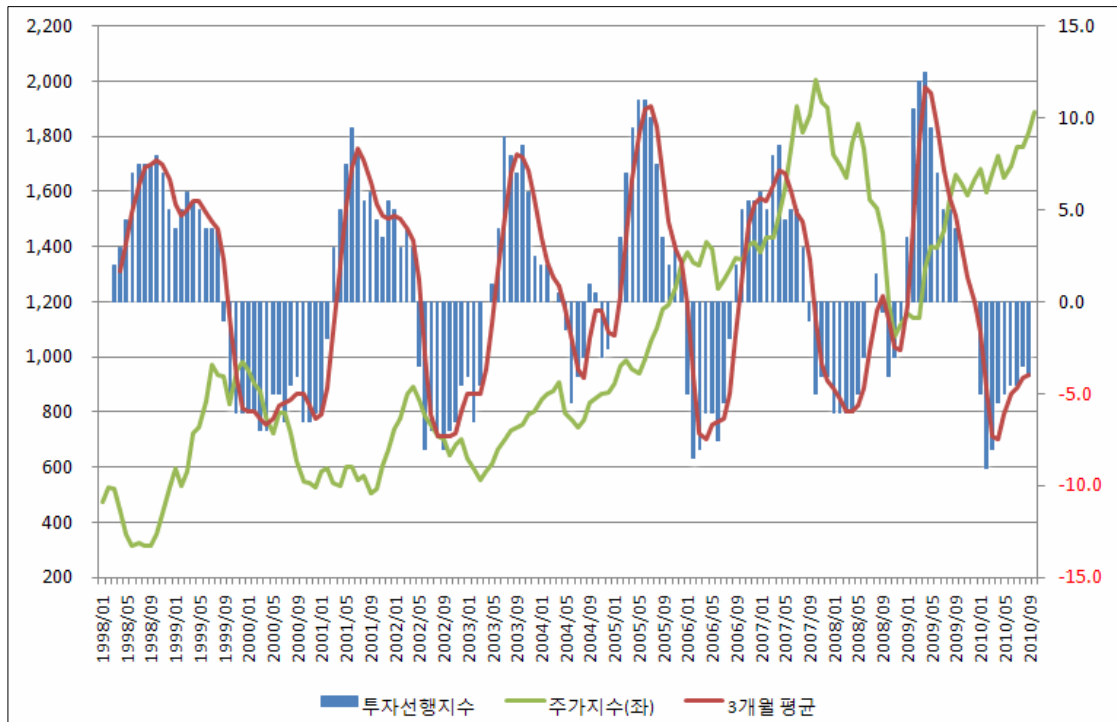


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기인한 현상 발생
 (과거 97년 외환위기 이후, 2003년 카드사태 이후, 2008년 서브프라임
 사태 이후 발생) 금융완화정책을 강하게 유지하여 유동성 장세 실현
 경기 및 기업실적과 무관한 유동성 장세로 인한 상승 뒤엔 상당 폭의
 주가조정이 필요



현재 외국인의 순매수는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대규모 흑자폭에 기인한 면이 크지만, 중국의 긴축 및 미국경제 회복 부진, 유로문제의 재부각에 따라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지 의문 또한 원-달러 환율의 강세 지속으로 상품 수출에 비우호적인 상황

2. 투자선행지수



자료 : (사)광주경제문화공동체

- 당사가 자체 개발한 주식시장과 연관성이 높은 각종 경기, 심리, 금융 등의 지표들을 조합하여 만든 **투자선행지수는 지금까지 총 6번의 매도신호(투자선행지수가 (+)에서 (-)로 전환되는 국면)와 총 5번의 매수신호(투자선행지수가 (-)에서 (+)로 전환되는 국면-)를 보였음.**

- 미국의 '양적완화2' 기대감 종료에 따른 신흥국으로 자금유입이 지속적일 수 있는지 여부와, 현재 자국의 통화강세에 따른 신흥국들의 자본유입 규제책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, 중국의 긴축 전환과 유로문제의 재부각 등을 고려한다면 유동성에 의한 상승 탄력이 둔화되어 시장참여

자들의 관심이 점차 기업의 실적 및 경기상황으로 쏠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. 또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라는 점에서 상승 일변도의 투자자 심리가 다소 흔들릴 가능성도 예상되는바, 25호 경제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현 국면에서는 **‘보유종목들의 적극적인 매도 후 지속 관망’**의 자세가 필요해 보임.

본 보고서는 특정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추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, 분석 당시 신뢰성 및 객관성에 의거한 자료와 정보에 의해 작성된 "(사)광주경제문화공동체" 의견일 따름이며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당사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.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